



“ 일본 낚시인구 700만 ”



지난 1월 20~22일에 도쿄 피싱쇼(JAPAN FISHING SHOW 2017)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도 자주 찾는 행사다. 페이스북을 통해 그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좋은 뉴스가 있다는 일본인 '폐찬'의 글이 눈에 띄었다. 3일간의 입장객 수가 총 38,635명으로 작년 대비 101.35%, 조금이나마 2년 연속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낚시인구도 증가했는데 작년 12월에 나온 '레저백서'에 의하면 67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30만명이 늘어나 낚시업계의 부활의 조짐이 보인다며 기뻐했다.

일본의 낚시 인구는 버블현상이 한창이던 1998년에 2천20만명으로 피크였다가 버블붕괴와 더불어 매년 감소했지만 2014년에 660만, 2015년에 670만, 그리고 작년에 700만으로 늘어났으며 자축하고 있었다. 일본의 인구가 1980년대 중반부터 1억2천만명이 넘었으니 한창일 때는 인구의 약 18%가 낚시인 아닌가? 놀라울 뿐이다. 지금은 한 6%가 낚시인이란 소리다.

정확한 우리나라 낚시인구 통계가 아쉽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12년 해수부의 통계로 보면 600만~7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가 잠재적인 낚시인구(연 1회 출조)를 포함한 추정치라는 것이다. 700만이라면 일본의 낚시인구하고 같다는 소리? 기가 찬 것이 우리 전 국민의 12% 넘는 수가 낚시인이란 말이다. 업계 상황과 비례한다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정확한 통계가 아쉽다. 잠재적인 낚시인구라는 말도 우습다. 이 중 진짜 낚시인은 몇 명이나 될지... 수시로 낚시도구를 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틈을 내 낚시 가는 '내 취미는 낚시'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낚시를 못가더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낚시를 못가더라도 진짜 낚시인은 틈틈이 낚시도구를 손질하고 부족한 도구나 갖고 싶은 도구가 있다면 구입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낚시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

'불황이라 다들 어려워서 그래'라고 답하기는 쉽다. 낚시를 그만두게 되는 원인 파악도 낚시 인구를 늘려나갈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부풀리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낚시 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기초 작업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 믿음직한 기관의 성실한 공무원에게 맡기자고 추운 골방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다가 슬쩍 생각해본다. A

Writer's Profile



조흥식 이학박사

「루어낚시 첫걸음」, 「루어낚시 100문 1000답」 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낚시책을 썼다. 중학교 시절 서울릴 출조를 따라나서며 루어낚시에 깊이 빠져들었다.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지깅 보급과 바다루어 낚시 개척에 앞장섰다. 지금은 미지의 물고기를 찾아 세계 각국을 동분서주하고 있다.